

클래식계 새바람 일으킨 '꽃남 앙상블'



리처드 용재 오닐



유치엔첸



스티븐 린



다니엘 정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앙상블 디토' 공연

6월18일 용재 오닐·유치엔첸 등 참여

브람스·쇼스타코비치·바르토크 연주

12월 베를린·빈 필 '필 하모닉스' 공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국내에 알려진 건 지난 2004년이었다. 3년 전 '세종솔로이스츠' 단원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용재 오닐은 KBS 1TV '인간극장'에 소개되면서 클래식 팬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한국전쟁 당시 고아가 돼 미국으로 입양된 어머니와 아일랜드 출신 미국인 조부모 밑에서 자란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이듬해 발매한 1집 앨범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한국에서 열린 첫 독주회 역시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2006년 또 다른 실험을 한다. '젊은 클래식'을 표방하며 젊은 솔리스트들과 '앙상블 디토'를 결성했고 2009년부터는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을 시작한다.

광주일보사가 창사 66주년을 맞아 수준높은 클래식 공연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앙상블 디토가, 12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자들로 구성된 '필하모닉스'가 무대에 오른다.

앙상블 디토

앙상블 디토는 결성 당시부터 팬들을 몰고 다녔고 디토 페스티벌 역시 예술의 전당 최고 히트상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탄탄한 실력과 함께 세련된 외모, 차별화된 마케팅 등으로 무장한 디토는 '꽃남 앙상블', '클래식계의 아이돌'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디토펠페스티벌은 오는 6월7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2018 페스티벌은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콘서트, 첼리스트 문태국 리사이틀,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리사이틀, 미사 마이스키와 앙상블 디토' 등으로 구성된다.

하이라이트 무대인 '앙상블 디토-Dynamic DITTO'의 광주 공연은 오는 6월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앙상블 디토는 매년 멤버를 자유롭게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수필가 피천득 작가의 외손자인 스테판 재키브와 피아니스트 지용 등 젊은 연주자들이 디토

를 거처왔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올해 공연에도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지난 201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대만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첸은 쉐리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윤이상국제 음악콩쿠르 우승, 사라사테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젊은 연주자다.

커티스 음대, 클리브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다니엘 정은 한국계 최초 그래미 수상의 쾌거를 이룬 '파커 과르다' 리더로 지난 2011년부터 앙상블 디토에서 활동중이다.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은 줄리어드 음악원 출신으로 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3등상을 받았던 2014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2위 입상했던 연주자다.

그밖에 지난해 금호아트홀 상주아티스트였던 첼리스트 문태국은 아시아인 최초로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우승, 이름을 알렸으며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은 2016년 자크 랑솔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 위촉작품 최고 연주상 등을 동시수상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르토크의 '콘트라스트',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삼중주',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등이다.

필하모닉스(PHILHARMONIX)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필하모닉스'이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필하모닉스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앙상블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멤버는 베를린 필 악장을 맡고 있는 노아 벤디스를 비롯해 세바스티앙 거틀러(바이올린-베를린 필), 티로 페이너(비올라-빈 필), 스테판 콘츠(첼로-베를린 필), 오토 라츠(더블베이스-빈 필 수석), 다니엘 오펜잠머(빈 필 수석단원), 크리스토퍼 트라슬슬러(피아노) 등 7명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정통 클래식과 팝송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요한스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험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서곡, 록그룹 퀸의 'Bohemian Rhapsody', 스티브의 'Englishman in New York' 등을 만날 수 있다.

디토 앙상블 티켓 가격 8만8000원, 6만6000원, 3만3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들로 구성된 '필 하모닉스'.

명창 김영임, 국악관현악을 만나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8일 광주문화예회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광복)은 명창 김영임(사진)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15회 정기연주회 '김영임, 국악관현악을 만나다'를 연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박광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첫 무대는 '세상을 여는 소리'로 문을 연다. 두 번째 무대는 몽골의 대표 작곡가 잔노르와 마두금 악단이 제작한 '흰색석가탑(White Stupa)'과 몽골 나담 축제를 표현한 '중턱의 축제(The Naadam Embankment)'를 선보인다.

대금무대는 김상연씨가 협연한다. 신석정 시인시 '대바람 소리'를 대금협주곡으로 들려준다. 이밖에도 모듬북 협주곡 '타(TA)', 피리협주곡으로 편곡된 울드 팝송 '섬머타임(Summer Time)'을 선보인다.

김 씨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과에서 교수로 활동중이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무대는 국악 명창 김영임과의 협연 무대이다. 1974년 회심곡 완창 앨범으로 데뷔해 국악인 최초로 1998년 뉴욕 카네기홀 단독공연을 펼쳤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조교로 목계월, 이창배의 예맥을 전승해 전통성 있는 창법을 구사하는 국악인이다.

강원도 산간 지방의 특유한 정서가 새겨진 '한 오백 년', 궁거리 장단에 맞추어 남녀 간 정을 읊는 경기민요 '대화타령', 굽전에서 무당이 부르던 무가였던 '장부타령', 활기차고도 울동적인 가락을 지닌 '햇노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43.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암스테르담 미술관 렘브란트 작품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행사... 15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세계미술관의 명화를 감상하는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행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3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프란스 할스와 렘브란트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렘브란트 작품으로는 '야간순찰'을 비롯해 '티투스의 초상', '유대인 신부', '예루살렘의 파괴로 슬퍼하는 예레미야' 등의 걸작을 다룬다. 또 프란스 할스의 작품으로는 '신혼부부의 초상', '즐거움 술꾼', '한 남자의 초상' 등을 감상하며 크리벨리의 '마리아 막달레나'와 아베르캄프의 '스케이트를 타는 겨울풍경' 등도 만난다.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



렘브란트 작 '야간 순찰'

술관의 명작 감상을 통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인문지행 : http://cafe.daum.net/h-aret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에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봄간 5주년 - 발행인의 편지
다섯 번째 봄
새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소확행
프렌드
확신

- 소확행 라이프 꿈꾸는 이들
- 출판가 소확행 신드롬
- 대중문화 사로잡은 소확행

스포츠이야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시상 출발

해양수산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험,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⑥
남양,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매양 초대석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물리다시보기④-
소통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폴리

문장이 승위는 문학관을 찾아서⑥
지리산처럼 유장한
소설가의 공간
이병주 문학관

문화현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정음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티븐 vs. 멜릭

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⑥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대나무 사이로
분화꽃과 생테도시
다양한
-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품으로
- 달양식 데자갈비, 딸깍비